“공익 규제 사찰림, 국가법령 개정으로 해소”

전재경 위원, 사찰림 세미나서
합리성 결여 사찰림 규제 재고
사찰림 총괄처에 임업 허가 등
“입법당국, 가치 재판단 필요”
사찰림 활용 · 홍보 방안 제시도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사찰림 관리와 보전을 위한 세미나’가 8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사유림임에도 공익용 산지로 구분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사찰림에 대한 국가 법령 개정안이 제시됐다.

전재경 조계종 환경위원(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은 8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사회부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찰림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사찰림 관련 국가 법령의 정비안을 제안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사찰림은 사찰 일원에 속한 산림으로 ‘사유지’에 해당되지만 현행법령에 의해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다. 공익용 산지는 국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산지로 사찰은 사찰림 소유자임에도 활용할 수 없다. 이것은 타 사유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 위원의 주장이다.

실제 사찰은 건물의 수리나 난방을 위해 자연공원에 속한 사찰림의 나무를 베고자 할 경우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나무를 베는 임업 수행을 위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함(산림자원법 제13조제3항)에도 사찰에 산림기술자(임업인)가 전무해 어려운 실정이다. 사찰이 사찰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사유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익용 토지 규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전 위원은 사찰림에 대한 법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 위원은 △사찰림의 ‘공익용 산지’ 삭제, ‘준보전 산지’ 이관(산지관리법) △사찰림 총괄처(종단 본부 혹은 인가·위임을 받은 사찰)의 임업인 포함(임업시행령) △산촌진흥계획에 사찰림 포함(임업진흥법) △자연공원 관리 주체에 사찰 포함(자연공원법) △신탁을 통한 사찰 산림경영 지원(산림자원법) △벌기령 연장(탄소흡수원법) 등의 정비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전 위원은 “사찰림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현행법을 정비한다면, 국가와 사찰이 산림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찰림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前 조계종 환경위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찰림 관리 방안’을 통해 사찰림의 이용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사찰림 관리 조건을 설명했다.

윤 교수는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현재 대부분 침엽수림인 사찰림을 탄소 저장력이 뛰어난 활엽수림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생태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임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찰림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산림관리자를 선발해 사회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옥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Korea 대표는 ‘지속가능한 숲의 생태계서비스 인증 사례’를 통해 사찰림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고양시킬 방안을 설명했다.

권성옥 대표는 “보존 가치와 생태다양성을 인정받은 FSC 인증 산림은 기업에게 임산물을 판매해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은 FSC 인증 원재료를 사용해 친환경기업 홍보가 가능하다”면서 “국내 사찰림 역시 FSC 인증을 받으면 생태다양성을 보존하는 수준에서 임산물을 생산, 판매해 지속가능한 사찰림 보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선 인사말에서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사찰림은 국토 환경과 문화유산의 보고로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라며 “사찰림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불교계의 대응력을 높이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의견 수렴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조계종이 종헌 개정을 위한 ‘총무원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계종 기획실은 8월 9일 입법예고를 공지하고 “교육과 전법,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통합 종무행정 실현, 미래 사회 대비 전법 포교 강화 등을 위해 개장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법 포교 및 교육 현안에 대한 단일 의사 결정체계 구축 △종단 행정 부서 및 총무원장 권한대행 순위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순으로 정함 △종단 전법 포교시스템 재구축 및 강화 △스님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일원화 △교구행정 연계 및 사찰 지원 기능 강화 등이다.

의견은 서면과 이메일(kimyuna83@wehago.com), 팩스(02-733-8285)로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임은호기자

상진 스님 “이승만기념관 건립 자체 철회”

태고종 8월 14일 입장문…“국민화합 저해 행위” 비판

이승만기념재단이 추진 중인 이승만기념관 건립이 송현광장이 아닌 국립중앙박물관 옆 용산공원으로 결정난 것에 대해 태고종이 반발하고 나섰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8월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승만기념관 건립 자체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진 스님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종교편향뿐만 아니라 3.15 부정선거에 따른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린 장본인으로서 국민들과 4.19의거에 의해 물러난 인물”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과 종교 화합의 정신을 깨뜨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키워나가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종교편향 정책과 부정선거 등을 저질러 하야한다는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화합을 해치는 일”이라며 “이승만기념관은 절대로 건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천명했다. 신중일 기자

군위 인각사, 일연 스님 열반 735주기 다례재

8월 11일, 진우 스님 등 동참해
“일연 스님 가르침 계승” 염원



일연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다례재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해 500여 명이 동참했다.

군위 인각사(주지 호암 스님)가 8월 11일 경내 국사전에서 ‘보각국사 일연선사 열반 735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가 봉행된 군위 인각사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하며 머물다가 1289년 세수 84세로 입적한 곳이다. 일연 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 역사와 문화유산 보존 및 불교 전통 계승을 위해 마련된 이날 다례재에는 500여 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다례재는 다도 시연, 육법공양, 명종,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헌화, 일연 스님 행장소개, 봉행사, 청법가, 입정, 법어, 추모곡,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보조국사 일연 스님의 깨달음과 ‘삼국유사’에 담긴 가르침을 설명했다. 이어 “일연 스님의 깊은 가르침은 2022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돼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동심협력(同心協力)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다례재를 통해 보각국사 일연 스님을 향한 사부대중의 지극한 존경의 마음 전달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에게는 민족의 훌륭한 전통문화 유산을 체험하고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인각사는 이날 다례재에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으며 선화여고에 장학금 2500만원을 전달하며 인재불사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일연 스님은 1284~1289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다. 1289년 세수 84세로 입적한 후, 나라에서 보각국존(普覺國尊)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임은호 기자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불신임’ 내홍

교구종회 8월 9일 불신임 가결
방장 예경실 “불법 행위” 비판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방장스님 불신임’ 건으로 내홍에 휩싸였다.

해인사는 8월 9일 경내 보경당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방장 원각 스님 불신임안을 가결 처리했다. 교구종회는 불신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으나 임회 개최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한 점, 승풍실추 등의 의혹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인총림 방장 예경실은 8월 12일 입장문을 내고 “교구종회는 총림 방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사 주지가 몇십명의 말사주지들을 모아놓고 불법적인 처리를 했다”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의도적인 정치행위일 뿐, 종헌종법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해인사 국장단이 나섰다. 이들은 8월 13일 ‘해인총림 방장실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하고 “교구종회법 제18조2항에 의거 합법적으로 개최됐다”면서 “방장스님은 언론에 자신의 비위와 불법사항을 감추고 호도하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해 해인사 국장단과 주지스님을 불법 폐악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에서 서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인사 방장 불신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